

옳은 것을 과거로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

Your living is determined not so much by what life brings to you as by the attitude you bring to life; not so much by what happens to you as by the way your mind looks at what happens. (Khalil Gibran)

당신의 생활은 삶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움직이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당신의 생활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칼릴 지브란)

많은 운동선수의 꿈과 희망의 무대라고 일컬어지는 올림픽, 그중에도 2014년 동계 올림픽이 술한 사연을 뒤로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특히 아쉬움이 많은 대회였고, 씁쓸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회였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은메달과 관련한 일종의 추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편파판정의 여운을 남겨 전 세계의 언론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항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 아닌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change.org’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판정을 바로 잡으라는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는 정말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겠지만, 의문이 있는 판정이 내려진 뒤에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합이고 지금 여기 있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빙판 위의 여왕이라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기간 내내 씩씩한 기분을 들게 한 일도 있었지요. 러시아 대표로 출전한 빅토르 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표인 안현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가 빅토르 안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고,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세 개나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김연아 선수라면, 어떻게 인터뷰했을 까요?
또한 당신이 안현수 선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활은 칼릴 지브란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삶을 움직이는 태도와 마음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삶의 방향을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잡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옳았던 일이던 옳지 못했던 것이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지나 버린 과거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활에 옳은 것을 과거로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